

학생 A

<문제 1>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은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개성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이다. 제시문의 언어들은 단어 속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단어에 뜻이 새롭게 내포되어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 간단하게 초성을 이용하는 등 언어 질서의 파괴가 일어난다. 또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으며 단지 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조어되었다. 제시문 가-1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언어규범의 파괴는 사회 내 언어의 존립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또한 일관적이지 않은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규범의 파괴가 일어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가-2의 관점은 일탈로 낙인하지 않은 언어규범에서의 일탈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한다고 본다. 그 결과 사회 내에서 단편적이지 않은 참신성을 발휘함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으로 더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규범에 변화요구가 있을 때 그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제시문 (나)의 또 다른 언어 유형은 새로 형성된 의미를 부여한 단어이고 이는 주로 줄임말 등을 통해 언어질서를 지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어의 특징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어휘가 많다는 점에 있다. 제시문 가-1은 이런 유형에 대하여 언어 규범의 준수에 따라 사회 내 개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더불어 안정된 언어 규범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하지만 제시문 가-2의 시각에서는 언어 질서유지에 경도되어 자유의지나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단순히 줄임말의 형태로 언어가 주조됨에 따라 획일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이 무시되는 등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다)의 사례는 사회규범의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 변화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규범은 시대에 따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변화한다. 또한 개인의 의식이 성장하거나 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때 규범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회규범의 특징으로는 법률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 확산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두 국가는 사회규범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의 변동성, 개인의 인식변화 등 각 사회에서 다른 규범의 변화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규범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각 사회는 구분될 수 있다. A사회는 1999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양성평등의 사회적 풍조가 유행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고 다양한 규범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는 정보가 풍부해짐에 따라 접근성이 강화되었고 정보소유에 있어 차이가 줄어들어 지위가 평등해지는데서 기인했을 것이다. 반면에 B국가는 사법시험 지원율에서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분위기에 의한 사회규범에의 영향력이 B국가에서는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인식 변화에 따른 사회규범의 변화로 개개인의 행동양식에 이바지 할 수 있다. A국가에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얻고 개인의 인식이 변화해 사회규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권의 신장 등 개인적 인식의 변화가 A국가의 사회적인 규칙의 변화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B국가의 경우 수치상의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개인의 인식변화 또한 사회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제도는 확산될 수 있고 법률로 보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는 법률로 규정되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B국가의 경우 분위기나 개인의 인식 등 제반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